
ITU-T와 IEEE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분석

Analysis on the Patent Database of ITU-T and IEEE

김수현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Soo-Hyun Kim(kimsoo@pcu.ac.kr)

요약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제표준은 기업의 생사와 국가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 표준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기업들은 자사에 유리한 표준을 확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표준에 특허 등 자사의 지적재산권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사의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한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표준화단체인 ITU-T와 IEEE의 표준에 포함된 특허에 대해 살펴본다. 특허 데이터 분석은 특허 활동의 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연구 주제이다. 국가별 특허 보유 현황과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자세한 분석 결과와 그 의미를 제시한다.

■ 중심어 : | 특허 | 표준 | 특허 데이터베이스 | ITU-T | IEEE | 정보통신기술 |

Abstract

As market becomes global,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is more critical for the success of businesses and countries. Especially in the field of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standardization is more important. Businesses not only try to expand the standard favoring them, but also they try to include their IPR(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s into the standard. By doing these, businesses can increase their share in the market.

In this paper we consider the patents included into the standards of ITU-T and IEEE which are major international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s(SDO) in the field of ICT. The patent analysis is a meaningful research topic because it helps u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patent activities. We investigate the patent database with respect to the nationality and institution of patent owners. The results of patent database analysis are included and some comments are presented.

■ keyword : | Patent | Standard | Patent Database | ITU-T | IEEE | ICT |

1. 서론

정보통신 분야에서 표준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다. 표준은 유용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면서 국제표준은 기업의 생사와 국가경

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기업에서는 표준화 못지않게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IPR)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표준에 자사의 특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표준화 노력을 통해 기술을 확산시키고 시장을 넓히려고 하며,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여 기술을 보호함과 동시에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려고 한다. 즉 기업에서 특허 등 지적재산권의 확보도 중요하고 이를 표준에 반영하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기구(SDO: Standards Development Organization)로는 ITU가 있다. 그리고 복미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구로 IEEE가 있다. IEEE는 엄밀히 말하면 국제 표준화기구는 아니나, LAN과 Wi-Fi 등 일부 IEEE의 복미 표준이 시장에서 de-facto(사실상)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기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도 IEEE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ITU와 IEEE는 표준과 관련된 특허를 포함하고 있는 Patent DB(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Patent DB를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는 표준에 반영된 특허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기에 표준화 관련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왔으며[1][2], 특허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확장될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제 표준화기구의 표준에 반영된 특허를 국가별 그리고 기업별로 분석하여 최신 현황과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정보통신 국제표준화기구에 등록된 표준특허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정부와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기관의 향후 특허 활동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II장에서는 Patent DB 분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별 특허와 기관의 연계도에 대해 설명한다. III장에서는 ITU-T의 Patent DB 분석 결과를, IV장에서는 IEEE의 Patent DB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끝으로 V장에서는 분석결과에 기반을 두어 시사점을 파악한다.

II. 분석방법

먼저 국가별 특허 보유 및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 등 다음과 같은 2개의 기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 국가별 특허 보유 현황: 표준화기구의 Patent DB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 중에 각 국가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
-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 표준화기구의 Patent DB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 중에 각 기관별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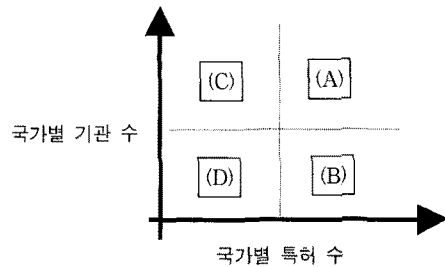


그림 1. 국가별 특허 및 기관 연계도

다음으로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동시에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 가로축은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를, 세로축은 국가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나타낸다. [그림 1]에서 (A)부분은 상대적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서 이에 관련된 기관의 수도 많은 국가를 의미하게 된다. 즉 많은 기관들이 표준화기구 활동에 참여하여 많은 특허를 등록하고 있어 표준화기구에서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반면 (D)부분은 상대적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관련된 기관의 수도 많지 않은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B)부분은 상대적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나 이에 관련된 기관의 수가 많지 않은 국가를 의미하는 영역으로, 소수의 기관이 집중적으로 특허를 개발하고 표준화기구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이다. 마지막으로 (C)부분은 상대적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못하지만 이에 관련된 기관의 수는 많은 국가를 의미하는 영역으로, 다수의 기관이 각각 소수의 특허를 개발하고 표준화기구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이다.

III. ITU-T의 Patent DB 분석

ITU-T의 Patent DB는 ITU-T의 웹페이지 (<http://www.itu.int/ipr/IPRSearch.aspx>)[4]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8월 31일 현재 ITU-T의 Patent DB에는 총 2,056개의 특허(Patent Statements)가 등록되어 있다.

표 1. ITU-T의 국가별 특허 보유 및 기관 현황

국가	특허수	비율	기관수	비율
USA	941	45.8%	105	47.3%
Japan	405	19.7%	26	11.7%
France	142	6.9%	11	5.0%
Finland	114	5.5%	1	0.5%
Germany	92	4.5%	14	6.3%
Israel	54	2.6%	9	4.1%
Netherlands	52	2.5%	4	1.8%
Sweden	50	2.4%	6	2.7%
UK	49	2.4%	11	5.0%
Korea	48	2.3%	7	3.2%
China	38	1.8%	2	0.9%
Canada	37	1.8%	11	5.0%
Italy	12	0.6%	3	1.4%
Norway	9	0.4%	3	1.4%
India	5	0.2%	1	0.5%
Switzerland	3	0.1%	3	1.4%
Belgium	1	0.0%	1	0.5%
Denmark	1	0.0%	1	0.5%
Hong Kong	1	0.0%	1	0.5%
Ireland	1	0.0%	1	0.5%
Spain	1	0.0%	1	0.5%
합계	2056	100.0%	222	100.0%

[표 1]은 ITU-T의 Patent DB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 보유 현황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핀란드, 독일 등 총 21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국이 총 941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의 45.8%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이 405개(19.7%)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전체의 65.5%(1,346개)를 차지하고 있어 매우 편중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프랑스(6.9%), 핀란드(5.5%), 독일(4.5%), 이스라엘(2.6%), 네덜란드(2.5%), 스웨덴(2.4%), 영국(2.4%), 대한민국(2.3%) 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10개 국가가 ITU-T 전체 특허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

ITU-T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시 미국이 가장 많은 105개 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본이 26개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

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222개 기관 중에 59%에 해당하는 기관을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ITU-T의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

기관	특허수	비율	국가
Nokia Corporation	114	5.5%	Finland
NTT	110	5.4%	Japan
Alcatel	77	3.7%	France
International Business Machines	75	3.6%	United States
Fujitsu Ltd.	72	3.5%	Japan
Nortel Networks Limited	67	3.3%	United States
Mitsubishi Electric Corp.	50	2.4%	Japan
France Telecom	46	2.2%	France
Intel Corporation	46	2.2%	United States
Lucent Technologies	45	2.2%	United States
Royal KPN N.V.	44	2.1%	Netherlands
AT&T Corp	42	2.0%	United States
Motorola Inc.	42	2.0%	United States
Texas Instruments	42	2.0%	United States
KDDI Corporation	40	1.9%	Japan
Huawei Technologies Co., Ltd.	36	1.8%	China
Cisco Systems, Inc.	36	1.8%	United States
Siemens	35	1.7%	Germany
ECI Telecom Ltd.	35	1.7%	Israel
Aware, Inc.	33	1.6%	United States
Microsoft Corporation	31	1.5%	United States
The others (201개)	938	45.6%	-
합계	2,056	100.0%	

[표 2]는 ITU-T의 Patent DB에 등록된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이다. 핀란드의 Nokia가 11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본의 NTT가 110개(5.4%), 프랑스의 Alcatel이 77개(3.7%), 미국의 IBM이 75개(3.6%)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위 21개 기관이 전체의 54.4%에 해당하는 1,118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대한민국 소속으로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은 14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기관 중에 35번째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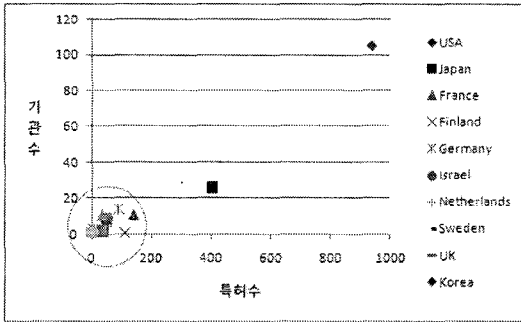


그림 2a. ITU-T의 국가별 특허 및 기관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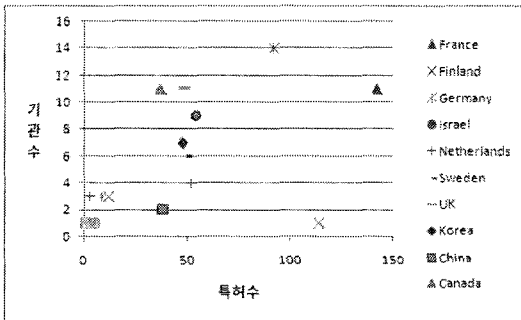


그림 2b.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ITU-T의 국가별 특허 및 기관 연계도

[그림 2a]는 ITU-T의 Patent DB에서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와 국가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연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적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역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직선을 그린다면 이 직선 위에 국가들이 위치하는 모습이다. 미국이 특허의 수나 기관의 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 ITU-T에서 미국이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이 활발한 표준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b]는 ITU-T에서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국가별 특허의 수와 특허 보유기관의 수를 연계하여 나타낸 것이다. 프랑스와 독일은 특허의 수가 비교적 많고 특허의 수와 특허 보유기관의 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핀란드는 특허의 수는 독일보다 많으나 특허 보유기관은 Nokia뿐이어서 Nokia에 대한 의존이

절대적임을 알 수 있다.

표 3. ITU-T의 대한민국 특허 보유 현황

Series	기관	특허수
G.711	ETRI	5
G.723.1	LG Electronics	1
G.729.1	ETRI	4
H.222	Goldstar	4
	Samsung Elec	1
H.223	Samsung Elec	3
H.261	ETRI	1
H.262	Goldstar	5
	Samsung Elec	5
H.263	Samsung Elec	5
H.264	LG Electronics	1
	ETRI	1
J.144	Yonsei Univ	3
J.242	Yonsei Univ	1
	SK Telecom	1
J.246	SK Telecom	1
	Yonsei Univ	1
J.247	SK Telecom	1
	Yonsei Univ	1
T.88	Kwangwoon Univ	1
X.1251	ETRI	2
합계		48

[표 3]은 ITU-T의 Patent DB에서 대한민국의 특허에 대한 내용이다. 대한민국은 ITU-T의 표준 권고 시리즈 (Recommendation Series) A~Z 중에서 주로 G, H, J 시리즈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Series H에 속한 특허가 26개로 전체의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영상과 멀티미디어 분야에 많은 특허 개발과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서 Recommendation Series G는 'Transmission systems and media, digital systems and networks'를, Series H는 'Audiovisual and multimedia systems'를, Series J는 'Cable networks & transmission of television, sound program & other multimedia signals'를, Series T는 'Terminals for telematic services'를, Series X는 'Data networks, open system communications and security'를 의미한다.

ITU-T에서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기관별로 살펴보면, 삼성전자가 14개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13개, Goldstar가 9개, 연세대학교가 6개의 특허를 보유하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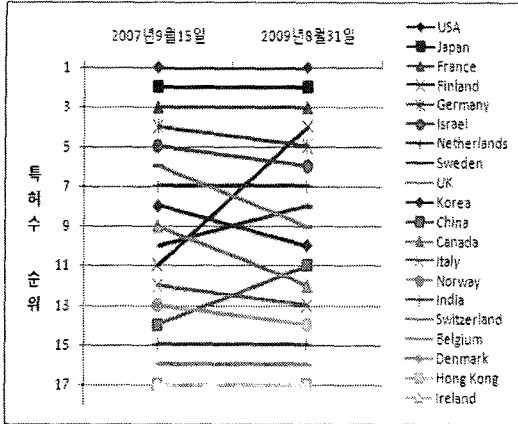


그림 3. ITU-T의 국가별 특허 수 순위 변화 (2007년과 2009년)

한편 ITU-T의 2007년 국가별 특허 수[3]와 본 논문의 결과를 비교[그림 3]해보면, 약 2년 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여전히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핀란드는 왕성한 특허 활동을 통해 특허 수에 의한 순위에서 11위에서 4위로 올라섰다. 이는 Nokia의 특허 보유수가 2007년 26개에서 2009년에 114개로 무려 88개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 중국과 스웨덴도 특허 수에 의한 순위가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07년까지 보유한 특허 수가 7개뿐이었으나 약 2년 동안 38개로 늘렸고, 스웨덴은 2007년까지는 29개였으나 이를 약 2년 동안 50개로 늘렸다. 대한민국은 2007년까지 보유한 특허 수가 38개였고 2009년에는 48개로 증가하였으나, 특허 수에 의한 순위는 낮아졌다.

IV. IEEE의 Patent DB 분석

IEEE의 Patent DB는 IEEE의 웹페이지 (<http://standards.ieee.org/db/patents>)[5]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09년 9월 13일 현재 IEEE의 Patent DB에는 총 758개의 특허(Patent Statements)가 등록되어 있다.

표 4. IEEE의 국가별 특허 보유 및 기관 현황

국가	특허수	비율	기관수	비율
USA	539	71.1%	180	66.9%
Japan	51	6.7%	19	7.1%
France	27	3.6%	6	2.2%
Korea	20	2.6%	5	1.9%
Canada	19	2.5%	8	3.0%
Israel	17	2.2%	9	3.3%
China	15	2.0%	2	0.7%
Finland	15	2.0%	2	0.7%
Germany	10	1.3%	7	2.6%
UK	9	1.2%	7	2.6%
Netherlands	8	1.1%	5	1.9%
Sweden	7	0.9%	2	0.7%
Taiwan	6	0.8%	4	1.5%
Australia	4	0.5%	4	1.5%
Ireland	3	0.4%	2	0.7%
Russia	2	0.3%	1	0.4%
Switzerland	2	0.3%	2	0.7%
Austria	1	0.1%	1	0.4%
Denmark	1	0.1%	1	0.4%
Italy	1	0.1%	1	0.4%
Spain	1	0.1%	1	0.4%
합계	758	100.0%	269	100.0%

[표 4]는 IEEE의 Patent DB에 등록된 국가별 특허 보유 현황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캐나다, 이스라엘 등 총 21개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 미국이 총 539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의 71.1%를 차지하고 있어 미국에 매우 편중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6.7%), 프랑스(3.6%), 대한민국(2.6%), 캐나다(2.5%), 이스라엘(2.2%), 중국(2.0%), 핀란드(2.0%), 독일(1.3%), 영국(1.2%) 네덜란드(1.1%) 등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렇게 11개 국가가 IEEE 전체 특허의 9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역시 미국이 가장 많은 180개 기관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으로 일본이 19개 기관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체 269개 기관 중에 74%에 해당하는 기관을 미국과 일본이 보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 5. IEEE의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

기관	특허수	비율	국가
Cisco Systems, Inc.,	41	5.4%	USA
Intel Corporation	39	5.1%	USA
Motorola, Inc.,	23	3.0%	USA
Qualcomm Incorporated	21	2.8%	USA
Broadcom Corporation	20	2.6%	USA
Nortel Networks Limited	17	2.2%	USA
IBM Corporation	16	2.1%	USA
Huawei Technologies Co. Ltd	14	1.8%	China
Nokia Corporation	14	1.8%	Finland
AT&T	14	1.8%	USA
Research in Motion Limited	13	1.7%	USA
France Telecom	12	1.6%	France
Symbol Technologies, Inc	12	1.6%	USA
Hewlett Packard Company	11	1.5%	USA
Alcatel Lucent	10	1.3%	USA
Apple Computer, Inc	10	1.3%	USA
The others	471	62.1%	-
합계	758	100.0%	

[표 5]는 IEEE의 Patent DB에 등록된 기관별 특허 보유 현황이다. 미국의 Cisco가 41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Intel이 39개(5.1%), 미국의 Motorola가 23개(3.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상위 16개 기관이 전체의 37.9%에 해당하는 287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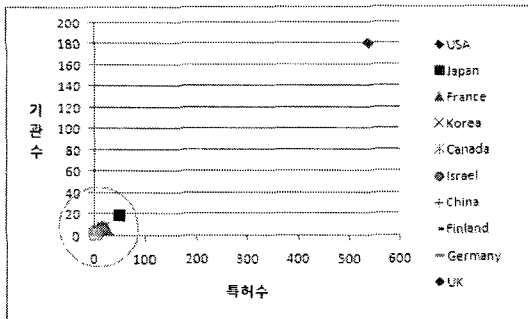


그림 4a. IEEE의 국가별 특허 및 기관 연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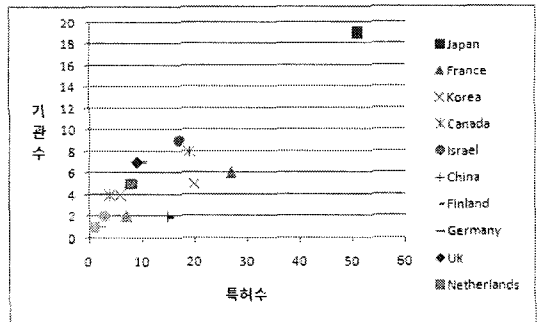


그림 4b. 미국을 제외한 IEEE의 국가별 특허 및 기관 연계도

[그림 4a]는 IEEE의 Patent DB에서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와 국가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연계하여 나타낸 것이다. 미국이 특허의 수나 기관의 수가 모두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어, IEEE에서 미국이 표준화 활동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나머지 국가 간에 차이가 심하여 [그림 4a]에는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기에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국가별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와 국가별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를 연계하여 나타낸 것이 [그림 4b]이다.

[그림 4b]에 의하면 일본은 상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나 관련된 기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ITU-T와 유사하게 전체적으로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수도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프랑스, 캐나다, 이스라엘 등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중국과 핀란드의 경우는 관련된 기관의 수에 비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몇몇의 기관에 의해 집중적으로 특허가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대부분인 14개를 Huawei Technologies가, 그리고 핀란드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대부분을 Nokia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독일, 영국의 경우는 보유하고 있는 특허의 수에 비해 관련된 기관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여러 기관에 의해 표준화 활동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IEEE의 대한민국 특허 보유 현황

Series	기관	특허수
802.3	ETRI	1
	Hyundai Elec	2
802.5-802.10	Hyundai Elec	1
802.11	ETRI	1
	LG Electronics	4
802.12-802.15	ETRI	1
	Orthotron	1
802.16	ETRI	1
	LG Electronics	3
	Samsung Elec	1
802.17 - 802.22	ETRI	2
	Samsung Elec	1
1390 - 11073-20601	Samsung Elec	1
합계		20

[표 6]은 IEEE의 Patent DB에서 대한민국의 특허에 대한 내용이다. LG전자가 가장 많은 7개의 특허를, 다음으로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가 6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IEEE의 표준 중에서 주로 802.3, 802.5, 802.11, 802.15, 802.16, 802.22에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EEE 802 표준은 컴퓨터 통신망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IEEE 802 위원회에 의해 개발된 일련의 LAN 접속 방법 및 프로토콜 표준들을 지칭한다. 이중에 802.3은 Ethernet, 802.5는 Token Ring, 802.11은 Wireless LAN, 802.15는 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 (WPAN), 802.16은 Broadband Wireless Access, 802.22는 Wireless Regional Area Networks(WRAN)에 대한 표준을 의미한다.

IEEE의 2007년 국가별 특허 수[3]와 본 논문의 결과를 비교[그림 5]해보면, ITU-T의 경우와 같이 약 2년 동안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여전히 활발한 특허 활동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특허 수에 의한 순위는, 2007년까지 보유한 특허 수가 10개였으나 약 2년 동안 20개로 증가하여, 8위에서 미국, 일본, 프랑스 다음인 4위로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네덜란드는 약 2년 동안 IEEE에 특허 반영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여 순위가 하락하였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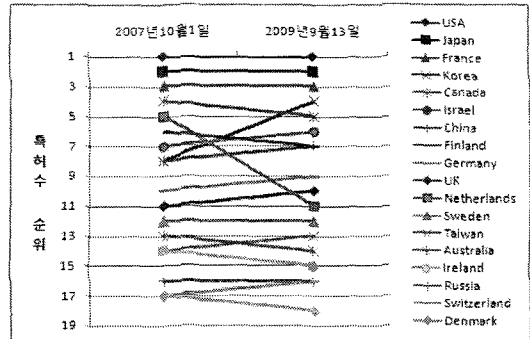


그림 5. IEEE의 국가별 특허 수 순위 변화 (2007년과 2009년)

V. 결론

앞에서 대표적 국제 표준화 단체인 ITU-T와 IEEE의 Patent DB 현황을 분석해 보았다. Patent DB 분석 결과,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국에서 개발한 기술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국제표준화단체의 표준 개발에 매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특허와 연계한 표준화 활동은 ITU-T와 IEEE 모두 유사하게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ITU-T와 IEEE의 Patent DB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두 표준화 단체에서 모두 Top 10에 포함될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2007년에 수행되었던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IEEE에서는 최근 빠른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기술개발과 특허 반영을 위한 연구기관, 기업, 그리고 정부의 노력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최상위권과는 차이가 여전히 매우 크며, ITU-T에서는 최근 성장이 주춤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ITU-T와 IEEE의 Patent DB의 분석은 최근 지적재산권과 표준화 간의 연계성이 강조되는 국제 표준화 동향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 표준화와 연계시키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자국 기술의 전 세계적 확산을 통한

세계 정보통신 시장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더욱 확고히 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원천기술의 개발을 통한 더 많은 수의 지적재산권의 확보 그리고 이를 국제표준에 반영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제 표준화 활동이 더욱 더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지원도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참고 문헌

- [1] 박웅, 이병남, 민재홍, 이형호, “ITU-T의 지적재산권 정책 동향 및 Patent DB 현황 분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0권, 제4호, pp.198-207, 2005.
- [2] 박웅, 이병남, 민재홍, “IEEE의 특허 정책 및 Patent DB 현황 분석”, 주간기술동향, 1216호, pp.14-23, 2005.
- [3] 김수현, 김범환, 박웅, “IT 국제 표준화기구의 특허 데이터베이스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9권, pp.173-183, 2007.
- [4] <http://www.itu.int/ipr/IPRSearch.aspx>
- [5] <http://standards.ieee.org/db/patents>

저자 소개

김수현(Soo-Hyun Kim)

정회원



- 1997년 2월 : KAIST 경영과학과 (공학박사)
- 1997년 3월 ~ 2003년 2월 : 한국 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 2003년 3월 ~ 현재 :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e-비즈니스, 정보통신경영, 최적의사결정 모형